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연중 제26주일

제2165호

2023년 10월 1일(가해)



오늘의 미사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마태 21,31).”

▶ 입당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 제1독서: 에제키엘 예언서 18,25-28

▶ 화답송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 제2독서: 필리피서 2,1-1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 복음: 마태오 21,28-32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7시
	주일 오전 6시 30분
	주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오후 4시 (St. Peter & Paul 성당)
평일미사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Home : 808.664.0632
Cell : 808.389.1702)

- 주임신부: 이득규(바오로)
- 사목회장: 이명노(비오)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hawaii.org>



사목 일정

1) 10월 봉성체 안내

10월 봉성체는 10월 10일(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자성사나 봉성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나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664-0632, Cell 389-1702)

2)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 일정 안내

10월 01일(일)	오후 4시
10월 08일(일)	오후 4시
10월 15일(일)	미사가 없습니다.
10월 22일(일)	오후 4시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3) 사무실 공지 사항

50주년 준비를 위한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최미근 레지나 자매님, 희란리용 자매님,
이기운 요셉 형제님

4) “내포교회사 연구소” 연구팀 방문

본당 50주년사 편찬 준비를 위해 “내포교회사 연구소” 연구팀이 10월 3일(화)부터 10월 12일(목) 까지 방문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5) 본당 신부님 휴가 안내

본당 신부님께서 10월 15일(일)부터 11월 13일(월)까지 휴가를 가십니다.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휴가기간에는 대전교구 허송현(안셀모)신부님께서 미사를 집전해주시겠습니다.



사목위원회

1) 영상 교육 상영 안내(교육분과)

10월 01일(일)	“성경 통독: 신명기 2부”
10월 08일(일)	“성경 통독: 신약입문 1부”

- 시간은 9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권영명(안드레아) 신부님 특강(교육분과)

‘본당 설립 50주년사’ 편찬 자료 수집차 방문하시는 권영명 신부님의 특강을 아래와 실시하오니 특강 신청을 권고 드립니다.

일시	10월 8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간식 후 2시간 정도)
강사	권영명 안드레아 신부님 대전교구 내포교회사 연구소 부소장
주제	하와이 한인 천주교 공동체의 발자취
접수	방명록 코너(성당 정문 좌측)

3) 오하나 센터와 컨퍼런스룸 사용 공지사항

10월 3일(화)~ 10월 12일(목)까지 컨퍼런스룸은 “내포교회사연구소” 팀 사무실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컨퍼런스룸과 오하나 센터는 Holy Family 학교에서 1년간(6월 28일 2024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오하나 센터를 이용하시는 단체장들께서는 미리 장소를 확인하셔서 모임 장소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 ◦ 보험처리/친절상담 혹 프랜차이즈 / 836-5887

김남훈(베드로) 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광고문의
사무실 : 808-422-1010

구역 및 단체 모임 안내

알아드립니다

1) 상임위원회 및 회장단 모임

일시: 10월 1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2) 철야기도 모임

일시: 9월 30일(토) 7시 미사 후
장소: 성당

재정위원회

-2차 헌금 안내 9월 30일/10월 1일
Ohana Christ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9월23/24일):\$4,746

주일헌금	교무금	특별헌금
\$2,590	\$1,670	\$486

코로나 19 바이러스 재유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요즘 성당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키도록 합시다.

출애굽기-이집트에서의 탈출(2)

하느님의 얼굴을 그려 보이는 책인 탈출기에서는 두 번 하느님의 이름이 계시된다. 첫 번째는 “나는 있는 나다”(탈출 3,14)이다. 두 번째로 계시된 이름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느님”(탈출 34,6)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섬긴 하느님이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가 억눌려 고생하고 착취당하는 것을 굽어살피시고” 또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의 증거로 “억센 손으로 치시며 팔을 뻗으시어 온갖 표징과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모두 두려워 떨게 하시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다.”(신명 26,5-9)라고 그들의 원초적인 신앙고백에서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인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 역사 체험이고 이 사건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탄생한다. 주님의 위대한 업적인 출애굽은 하느님의 계시와 현존의 증거이기에 일반적인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이다.

출애굽기의 중요성은 하느님이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과 오늘도 계속되는 “영원한 해방의 전망을 연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지도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모세가 이끈 해방의 극적 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약성서의 이해 참조)

ARBOR Financial Group NMLS#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아일랜드 빈티지 커피

알라모아나/로얄하와이안 쇼핑센터
강호철 (바오로) / 941-9300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성인 이광렬 요한

성인명	유정률 베드로 (劉正律 Peter)
축 일	9월 20일
활동 연도	1837-1866년

성 유정률 베드로(Petrus)는 평안도 윤리면 논재골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잃어 고아가 되었는데, 호구지책으로 짚신을 삼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또 어찌다가 돈이 조금 생기면 노름판에 뛰어드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는 이덕표라는 친척의 권유로 천주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교리를 배워 서울에 있던 베르뇌 (Berneux, 張敬一) 주교로부터 1864년경에 영세 입교 하였다.

그는 순교할 때까지 극히 짧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열심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는 세례를 받은 후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였노라” 하며 자신의 기쁨을 큰소리로 표현했다. 그러나 원래 성격이 급했던 그는 자기 아내가 고집을 부리고 대들면 참지 못하여 부부 싸움을 하고 또 다투다가 아내를 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그가 영세한 뒤로는 아내 때리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 짚신처럼 생긴 나무토막을 가지고 자기 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때로는 피를 흘려가면서 자문자답하기를 “너 아프지? 제가 아프면 또한 네가 때리는 남도 아플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였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부인도 크게 달라진 남편을 보고 감화를 받아 마침내 착하고 상냥한 아내가 되었다. 그런데 이날 밤에는 유달리 교우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회장이 복음을 읽고 강론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교우들은 당연한 듯 조용히 체포되었으나, 마침 그날이

설날이었으므로 포졸들에게 술을 대접하는 틈을 이용하여 많은 신자가 피신하고 유 베드로와 몇 명의 신자들만 남아 포졸들에게 잡혔다. 포졸들과 먼 길을 가는 동안 유 베드로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도다.” 하며 마냥 즐거워하면서 평양 감영으로 끌려갔다.

이윽고 문초가 시작되자 신자들은 한결같이 신앙을 고백하였으나, 심한 곤장을 맞고는 4명이 배교하고 유 베드로와 정 회장만이 남았다. 또 그 얼마 후 정 회장도 친구들과 배교자들을 따라 가니 결국 유 베드로 혼자 남게 되었다. 그러자 화가 치민 감사는 배교자들을 불러 들여 곤장을 주면서 유 베드로를 쳐 죽이라고 명을 내리니, 배교자들은 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유 베드로를 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유 베드로는 자기를 때리는 동료들에게 “살이 살을 잡아먹는구나.”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그 후 배교자들은 감사의 명에 따라 그의 시신을 대동강에 버렸는데, 얼마 후 붉은 피가 물 위로 번져 나갔고, 신기하게도 그의 시체는 가라앉지 않고 언젠가 지나 동동 떠 있었으며, 매 맞은 자리는 이상한 광채가 나며 빛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때가 1866년 2월 17일이며,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그는 1968년 10월 6일 교황 성 바오로 6세(Paulus V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본당 설립 50주년 목주기도 봉헌
 9월 24일까지 목주기도 봉헌은
 총 261,122단입니다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선 / 599-9810, 592-5011	SAS Ala Moana 사스 공인 딜러 김 쿼리노 / 955-9500	해피약국 처방약, 한국약, 무료배달 김 쿼리노 / 955-9500
광고안내 사무실 전화 : 808-422-1010	Young Law Group LLC. 한국, 미국 변호사 그룹 상법, 계약법, 상속, 이민 808-591-0722 / 이재영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